

전공의 1년차가 알아야 할 흉부 사진

조 석 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전공의 1년차는 일과 중에 많은 부분을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사진을 판독하고 추가 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흉부 엑스레이를 정확히 판독할 줄 알아야 하며, 의심되는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수교육을 통해서 응급실과 수술 후 병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과 합병증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단순 흉부 사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외상에 의한 늑골 골절, 혈흉, 식도파열, 기관파열 등의 응급환자를 볼 수 있으나, 젊은 남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연성 기흉을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병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 흉부사진에서의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응급실에 흔히 볼 수 있는 질환과 수술 후 흔한 합병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진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 흉부사진의 이상 소견을 가지고 진단에 접근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이상 공기 음영 :

정상적인 단순 흉부사진에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공기 음영

➔ 기흉, 거대 낭종, 종격동 기종, 횡격막 파열, 식도파열 등의 임상 소견과 단순 흉부 사진 소견을 확인해 본다.

2. 이상 흉수 음영 :

정상적인 단순 흉부사진에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흉수와 수술 후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흉수

➔ 기흉이 동반된 혈흉, 전폐절제술 후 흉수 변화, 수술 후 혈흉, 유미흉 등의 임상 소견과 단순 흉부사진 소견을 확인해 본다.

3. 폐허탈 또는 염증을 시사하는 음영:

수술 후 정상적인 폐 팽창을 보이지 않고 폐 허탈과 폐렴을 시사하는 단순 흉부사진 소견을 이해하고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다.

➔ 단순 폐 허탈, 수술 후 lobar torsion, 수술 후 폐렴

상기 이상 소견들에 대한 임상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수술 방법과 수술 후 변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술 후 수술 과정에 참여하였던 집도의, 선배 전공의들과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예측되는 흉부 사진 이상 소견 등에 대한 토의가 매우 중요합니다.